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에디션 www.sportsdonga.com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 10판 E01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1 강화대교~초지대교 〈하〉

연미정 주막집 할머니의 두부부침으로 기운을 차린 나그네들은 쇠말(자전거)을 타고 논길, 들길을 달려 강화도 북쪽을 빙 돌아 강화도의 북서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창후리 선착장에 이르렀다.

창후리 선착장은 교동도를 연결하는 연락선이 들고나는 곳이다. 30분 전에 떠났다는 배가 아직도 지척에 있는 교동도에 닿지 못하고 바다에 떠있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나온다. 현재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동도 방향에서 밀려드는 조류가 거세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단 선착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발한단다. 수심이 얕고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물살이 거센 강화만에서 뱃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물때다. 보통 10분이면 건널 수 있는 코앞의 섬도 역류에 배를 띄우면 한 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은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하며 웅성거렸지만 섬 주민들은 저마다 편하게 자리를 잡고 기다린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다.

〈삽화=허영만〉

장화리에서 야영하며 새우를 구워먹고 있는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식객 빈대떡' 편에 등장했던 '오두산 막국수'의 이승하가 멀리 파주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달려온 것이다. 유도선수 출신으로 깍짓동 몸집을 가진 이승하는 우락부락한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섬세해 와인에 조예가 깊은 소믈리에이자 내공 있는 바리스타이기도하다. 그는 와인과 함께 깨지기 쉬워 좀처럼 갖고 다니기 어려운 와인잔까지 갖고 왔다. "허화백님이 북쪽 DMZ 부근에 오시면 반드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는데 DMZ에서 가까운 강화도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계시니 가만 있을 수 없었다"고. 뜻밖에 와인이 등장하면서 자전거 전국일주의 첫 밤이 한층 우아해졌다.

대하 머리만 떼내 스토브에 직화구이 바삭! 이맛이 새우다

강화도 화도면 장화리의 한 펜션 주차장에 캠프를 마련한 뒤 평화로운 저녁을 맞은 자전거 식객. 소박하게 새우 소금구이에 소줏잔을 기울이다 와인을 갖고 찾아온 이승하 덕분에 예정에 없던 와인파티가 벌어졌다. 캠프 뒤쪽 해안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야영 분위기는 황홀했다.

송철웅 아웃도어 칼럼니스트 timbersmith@naver.com
사진=이정식 스포츠 포토그래퍼 moto1444@hanmail.net

●가을 제철인 망둥어 요리의 비법, 망둥어찜

집단가출 자전거 식객들은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쳐 달렸다. 중간중간 끊긴 곳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 도로와 격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몇 개 나타난 언덕도 모두가 자전거로 오르내리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경사가 완만하다. 오른쪽에 바다를 두고 쭉 뻗은 해안도로를 달리는 것은 농로를 달리는 한적한 맛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갯벌에서는 망둥어 낚시가 한창이다. 망둥어는 고추와 함께 큰다고 한다. 고추 모종을 심는 봄에는 손가락 크기로 먹잘 것이 없으나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이면 씨알이 굵어진다는 얘기다. 망월리에서 낚시로 잡은 망둥어를 손질하고 있던 50대 아저씨를 만났다. 가을이 깊어 망둥어는 이미 한 뼘 넘을 만큼 컸다.

아저씨가 귀띔해준 망둥어를 먹는 법은 3가지. 회를 떠먹는 수도 있지만, 무를 넣어 매운탕을 끓이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법은 소금, 마늘, 깨로 양념을 한 뒤 꾸둑꾸둑 말려 쪄먹는 것이란다.

"강화 사람들은 겨울철 농한기에 술추렴을 할 때 망둥어찜 안주를 주로 먹어요. 살이 결대로 쪽쪽 찢어지는데 짭조름하고 씹는 맛이 있거든요. 꽁치구이하고, 콩이 또 많이 나니까 두부도 술안주로 좋고…."

비포장도로로 60여km를 달린 뒤여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허기가 밀려온다. 망월리, 외포리를 통과해 장화리에 이르자 해는 기울었다. 이번 자전거 전국일주에서는 날이 저물면 여관에 들지 않고 침낭과 매트리스로 캠핑을 하기로 했다. 자전거 여행길을 더 깊이, 더 현장감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다.

노을이 장엄한 해안제방 위에서 오늘의 야영지를 찾고 있는데 해안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이 다가와 만류한다. 해안제방은 일몰 이후 민간인 출입금지란다. 하는 수 없이 인근 펜션 주인의 허락을 얻어 펜션 앞 마당에 캠프를 마련했다.

저녁 메뉴는 한창 제철인 대하구이다. 코펠에 소금을 넉넉히 깔고 인근 양식장에서 사 온 살아있는 대하를 얹어 스토브에 올려놓자 식욕을 자극하는 새우 냄새가 낮게 퍼진다.

갯벌선 망둥이 낚시 한창
날 저물어 캠프 구축 야영모드
제철 대하에 와인도 한잔
전국투어 첫날밤은 깊어가고

〉〉 E2면으로 계속됩니다

1차 경로

집단가출팀 자전거 미각여행 계획

1 강화도 강화대교~초지대교	16 고흥~여수
2 초지대교~전곡항	17 여수~남해
3 전곡항~당진	18 남해~거제도
4 당진~안면도	19 거제도~부산
5 안면도~광천	20 부산~포항
6 광천~서천	21 포항~울진
7 서천~김제	22 울진~삼척
8 김제~선운산	23 삼척~양양
9 선운산~함평	24 양양~고성
10 함평~목포	25 고성~인제
11 목포~진도	26 인제~양구
12 진도~해남	27 양구~화천
13 해남~완도	28 화천~철원
14 완도~장흥	29 철원~파주
15 장흥~고흥	30 파주~강화도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